

보도자료

내 용 : 『노동리뷰』 8월호 - 패널연구

■ “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”(이상호)

- 한국노동패널 200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, 실업자, 중소기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지위가 낮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교육 훈련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- 희망하는 훈련분야 또한 기존의 제조업이나 업무관리 분야와 같이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정보통신나 어학분야와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.
- 교육훈련으로 인해 당장의 임금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, 일자리에서의 주관적-심리적 만족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연구원

Tel : 782-0141-310 E-mail : shlee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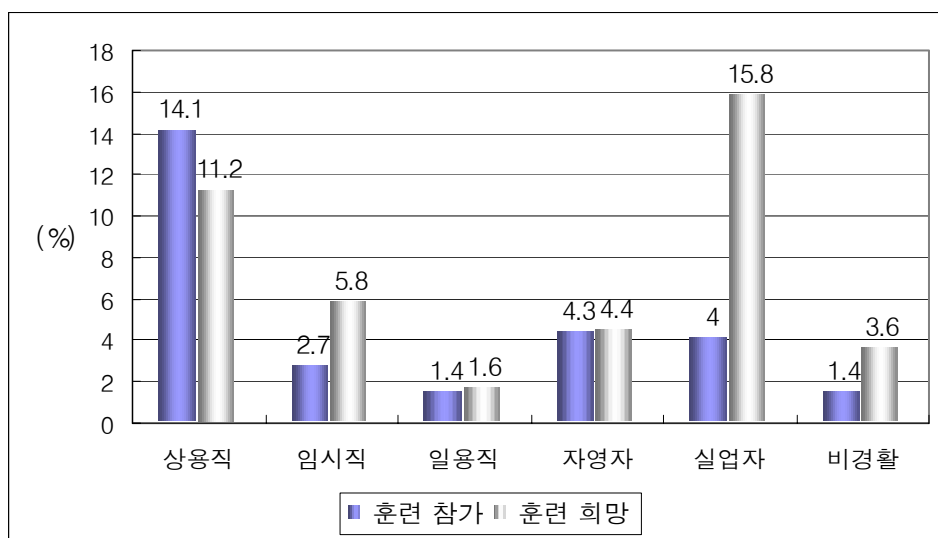
담당자	이상호 연구원
전화	02)782-0141-310

- 한국노동패널 7차(2004년)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교육 이후에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봄.

※ 본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『한국노동패널』은 1998년 전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5000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반복하여 추적·조사하는 패널조사임.

1. 현재 보유한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,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리일 수록 더 많은 훈련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.
 -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훈련참가율은 14.1%로, 임시직 2.7%, 일용직 1.4%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(그림 1 참조).
 - 특히, 실업자의 경우 훈련희망자의 1/4정도만이 훈련에 받았으며, 임시직 역시 훈련참가자가 희망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1] 고용상태별 훈련 참가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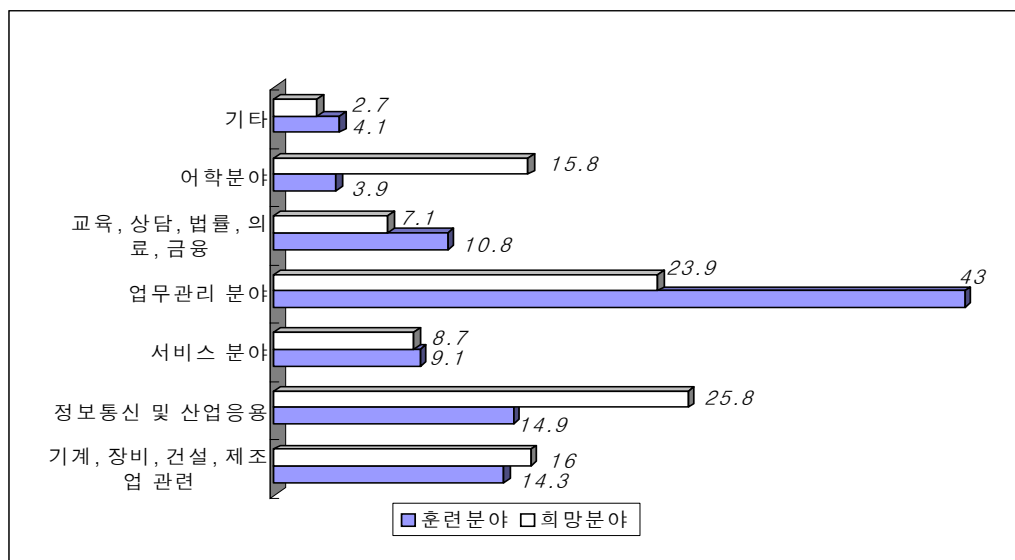


- 상용직 근로자 내에서도 저숙련보다는 고숙련 직종이,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, 무노조 기업보다는 유노조 기업이 더 많은 훈련기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.
- 요컨대,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더 나은 직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필요에는 못 미치고 있음.

2. 실제로 받고 있는 훈련의 내용과 희망하는 훈련의 내용간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-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92.7%가 업무능력향상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훈련을 받지만, 훈련을 희망하는 이유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67.3%로 줄어듦. 대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9.5%를 차지함.

[그림 2] 훈련을 받은 분야 및 희망하는 분야(상용직 임금근로자)



- 실제 훈련을 받은 분야는 제조업이나 업무관리 분야가 많았지만, 훈련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정보통신 산업이나 어학분야 등이 각각 10%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음(그림 2 참조).

- 훈련 지원 주체로는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이 74.7%, 정부지원훈련이 15.0% 등으로 나타남.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을 받은 근로자 중 재직자 훈련이 70%를 차지하였음.

3. 교육훈련의 임금인상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, 주관적·심리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남.

-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업체 특성, 그리고 ‘관측되지 않은 개인 효과’를 통제하여 교육훈련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.
- 그러나, 직무만족도의 경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참가한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34.2점 정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.
- 조직에 대한 몰입정도도 훈련에 참가한 응답자가 26.6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.